

18부 4처 17청 차관급 이상 30%, 100대 요직 28명, 청와대 비서관 대거 약진

문재인 정부 '호남인사 중용' 현실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광주·전남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약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호남 인사 중용'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영광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장흥 출신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 임명이 상징적이다. '호남 중용'의 기치로 시대적 고질병이자 적폐였던 지역 차별을 철폐,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광주일보가 분석한 청와대, 정부 부처, 100대 요직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각기 전남과 광주 출신이다. 정권의 심장 부인 청와대에서 정부 및 정책적 판단에 있어 호남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 여기에 실무 현안을 맡고 있는 비서관과 행정관에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약진했다.

호남 인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던 과거 보수 정권에 비하면 '상전벽해'라는 평가

총리·부총리·비서실장...

보수정권 대비 상전벽해

광주시·전남도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

호남 미래 열어갈 노력 필요

다. 청와대에서 호남 사투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호남 약진이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털어 놓을 정도"라며 "호남의 한을 넘어서지 않고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서의 호남 약진은 청와대를 넘어서고 있다. 당장, 광주·전남 출신으로 이낙연 총리를 비롯,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영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진하고 있다.

18부 4처 17청을 기준으로 총리, 장·차관, 총리실과 각 부 산하의 처·청장·위원장 등 차관급 인사 등 70명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11명(15.7%), 전북 출신은 10명(14.3%)으로 호남 출신은 21명(30.0%)으로 집계됐다. 비록, 부산·울산·경남 출신 18명(25.4%), 대구·경북 출신 7명(10.0%)으로 영남 출신이 25명(35.7%)으로 가장 많았지만 과거 보수 정권에 비해 크게 중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일보가 자체 분석한 문재인 정부 100대 요직에서도 호남 출신은 2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1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 민심은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호남 중용'의 흐름이 각 부처의 주요 보직 인사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 호남 인사들이 약진한 만큼 이를 토대로 광주시와 전남도

등과의 공조 체계도 원활하게 이뤄져 호남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벌써부터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이 명확하지 않고 공조 체계 구축도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호남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호남의 미래를 위해 여권을 압박할 카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협치를 지렛대 삼아 더욱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국민의 정부에서도 호남에서 준비되지 않아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호남 중용' 흐름을 토대로 지역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호남의 미래를 열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서구청광장에 '평화의 소녀상'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인 14일 광주시 서구청 광장에서 열린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서 배우 이당금씨가 소녀상의 눈물을 닦아내는 '나비의 꿈'이라는 제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5·17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일빌딩 5·18사적지 됐다

헬기 사격 탄흔 발견 10층·2, 3차 건물 외벽 원형보존

광주일보 옛 사옥인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이 5·18사적지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14일 "지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공간인 전일빌딩이 5·18 사적지(제28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 추정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 3차 건물 10층 내부와 2, 3차 건물 외벽이다. 전일빌딩은 지난 1965년 지상 7층 규모로 1차 건물이 건립된 뒤 4차

에 거쳐 건물을 옆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신·증축됐다.

현 금남로에서 바라보이는 건물 전면이 3차 건물이고, 뒤편 왼쪽 부분이 1차 건물, 뒤편 오른쪽이 2차 건물, 2차와 3차 사이를 4차 건물로 부르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국립과학사연구원에 의뢰해 3차례에 걸쳐 이 건물에 대한 조사를 했다. 옛 전일방송 기자재실 등 10층 내부에서는 탄흔 177개가 발견됐으며 2, 3차 건물 외벽에서도 탄흔 16개가 확인됐다.

광주시는 전일빌딩에 대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진압에 맞서 시민군이 싸우던 장소이자 헬기 발포 총탄흔적이 발견된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사적지 지정 필요성이 크다"며 5·18 기념사업위원회에 신청했다.

5월 항쟁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기념할 가치가 있는 장소나 공간으로 사적지로



광주시가 사적지로 지정한 옛 광주일보 사옥인 전일빌딩. /나명주기자 mina@

지정된 곳은 이번 전일빌딩을 포함해 모두 28곳이다. 5·18 항쟁의 시발지로 불리는 전남대 정문(1호)를 비롯해 옛 전남도청(5호), 상무대 옛터(17호) 등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들불야학 옛터(광전동 천주교회)가 2013년 9월, 27호로 지정됐다. 사적지로 지정 고시되면 해당 장소는

원형 보존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받게 된다.

한편 광주시는 앞서 전일빌딩 5·18기념공간 조성 전담반(TF)을 구성한 광주시는 10층을 원형보존하고 교육·기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한전공대 설립 TF팀 구성

공대 설립 사례 조사, 부지·재원 마련 등 논의

한국전력공사가 한전공대(KEPCO Tech) 설립을 위한 전담팀(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2면> 14일 한국전력공사와 전남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한전공대 설립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최근 TF팀을 확대·구성하고 설립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TF팀은 처장급을 팀장으로 건축·IT 각 분야별 직원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한전이 구성한 TF팀은 국내외 대학의 공대 설립과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정부·지자체

등과 설립 부지,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충청권의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와 영남권의 포스텍(포항공과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카이스트와 포스텍 같은 전문공과대학을 호남권에 설립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공대는 2020년까지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약 45만평 규모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신동엽, 라미란은
NK뷰키트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화
 문의: 080-340-2222 www.nkvue.com

